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00～110周年標語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感謝の百年、希望の百年
 (데살로니가전서 5:18)

8月1日(月) 2011年 第699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電話 03 (3202) 5398
 発行人/ 崔 栄 信・編集人/ 洪 性 完
 fukuinshinbun@kccj.jp
 info@kccj.jp

<2011年 平和メッセージ>

日本基督教団 総会議長 石橋秀雄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崔栄信

死者・行方不明者を合わせて2万人以上を出した未曾有の災害である東日本大震災は、私たち日本に住むすべての人々に大きな痛みと苦しみをもたらしました。特に、東北から関東にかけての約500キロにわたる沿岸部を飲み込み、人間の生活の営みを無残に破壊し尽くした津波は、恐るべき自然の力に対する畏怖の念と、そこに暮らす私たちに人間の弱さとはかなさをあらためて悟らせました。

このような悲劇の中で、私たち日本にあるキリスト者たちは、私たちの人生に与えられた「故なき患難」の意味を苦しみながら探しつつ、今大きな痛みの中にある人々と共にその痛みを分かちあいながら、それでもなお望みを持って復興への道を歩み始めています。なぜなら、「ひとり子の十字架の上での死」という絶望的な出来事でさえ全人類の救いへの器とされた神は、この絶望をも、私たちが測り知ることのできないその善きご計画にしたがって、未来の希望への器と変えてくださると私たちは信じているからです。

私たち、日本基督教団と在日大韓基督教会は、それぞれの復興支援策を通じて、被災地の教会とキリスト者たちのみならず、すべての人々に寄り添い、その苦しみと痛みを共に担っていくことを決意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すでに実施された緊急支援の他にも、被災地の復興と人々の生活の再建と魂の回復のためのサポートを、教会復興支援と同時に中・長期的に進めることをすでに計画し、実行しています。

さらに、「わたしの兄弟であるこの最も小さい者の一人にしたのは、わたしにしてくれたことなのである」(マタイ25:40)と説かれた主イエスの精神にのっとり、被災地における災害弱者(子ども、障がい者、高齢者、外国籍者)を取り巻く問題に、特に大きな関心を払いつつ、復興支援を進めていきます。またこれらの支援策のなかで、必要に応じて両教会が協力し互いの働きを支え合うことこそ、1984年に両教会の間に結ばれた宣教協約のひとつの結実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

一方でこの大震災は、私たち日本に住む人々の間違った歩みを明らかにしました。人々の予想をはるかに超える地震と津波の破壊力によって、その制御機能を失い崩れ落ちた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は、最悪の放射能汚染を引き起こし、今も多くの人々の命を危険にさらしています。実に、原子力の軍事利用によって大きな被害を受けた唯一の被曝国であり、核の恐ろしさを他のどの国よりも知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日本は「必要性」「安全性」「経済性」、そして最近では「親

環境性」というスローガンのもと、発電の原子力化を推し進めてきました。

また、今回の重大事故に際して日本政府は、一触即発の危機的状況や、人の健康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深刻な汚染状況が継続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事実を多くの部分において隠蔽し、むしろ放射能の被曝基準値を引き上げることによって急場をしのぐという、人々の命と生活に対する責任を放棄する行動を取っています。すでに、これまでの原子力推進政策を支えていた「必要性」「安全性」「経済性」、そして「親環境性」というスローガンのどれもが虚偽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東日本に住む人々の命を危険にさらし、全地球の環境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の原発事故は、とどまるところを知らない利便性と利潤の追求の道を歩むことを選択したこの国と、そしてそれを支えたこの国に住む人々が引き起こした「人災」であり、そういう意味でこれは、手をつけてはならなかった強大な力を我がものにして驕り高ぶっていた私たち人間の罪に対する警告で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日本基督教団と在日大韓基督教会は、この未曾有の震災状況と取り組みつつ、次のことを真摯に祈り求めつつ、共同の歩みを重ねていくことを表明いたします。

1. 被災者に対する公共の中・長期的支援が、精神的なケアも含めて適正に行われること。また被災者支援にあたる民間の努力に対して、政府による支援が十分に行われること。
2. 被災した外国籍者に対する公共の支援とケアが適正に行われること。また災害弱者に対する虐待や差別的待遇の有無が監視されること。
3. 日本政府と東京電力が、原発事故と放射能汚染に関わる全ての客観的事実を、隠すことなく明らかにすること。
4. 原発事故により警戒区域・緊急時避難準備区域・計画的避難区域に指定された地域の住民たちに対する生活保障が、完全に実施されること。
5. 原発事故後、原発作業員の被曝量、また子どもたちの被曝許容量の引き上げに関し、その合理的な根拠を明示し、その値を適正值にもどすこと。
6. 全ての原発の稼働を停止し、廃炉を前提とした処置が取られること。また原子力発電に取って代わる自然エネルギーの開発が全力で取り組まれること。

* 한국어 < 평화메시지 > 는 총회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11년 평화통일

남북 / 북남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8.15 광복절을 맞아 남과 북 / 북과 남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6년 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둘로 나뉜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오랜 세월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바라기는 지난 세월동안 반복해 온 우리의 절절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강산이 예닐곱 번 바뀌도록 담을 쌓고 살아왔지만 잠시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일 뿐 서로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과 같은 협력과 상생의 약속도 있었지만, 어느새 그 다짐을 잊은 채 다툼과 충돌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남과 북 / 북과 남이 서로 신의를 저버리고, 더 이상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더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우리에게 더 큰 아픔과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토록 노래했던 금강산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그토록 자랑했던 개성공단의 협력사업이 더 힘차게 발전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 / 북과 남의 왕래가 더 긴밀하게 하시고, 국제사회에서 형제자매처럼 협력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서로 돕게 하옵소서. 이제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어 서해바다에서 긴장이 그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분단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우리 이웃이 없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남과 북 / 북과 남이 먼저 한반도 / 조선반도 안에서 화해의 마음을 일구게 하시고,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평화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도우셔서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남과 북 /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남은 소명인 이 민족의 두 번째 해방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진실함으로 분단의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려온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역사의 숨결로 두근거려온 '통일염원'이 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겨레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西部地方会>姫路教会 韓澤柱牧師委任式举行



5月22日、西部地方会の姫路教会において、韓澤柱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まず臨時堂会長である金鍾樞牧師(明石教会)の司会より礼拝が始められ、JFP教会の特別賛美の後、表明徳牧師(神戸東部教会)がテモテへの手紙Ⅰ4章6節~16節の御言葉をもって、「キリストの立派な奉仕者」と題しての説教があった。裴牧師は、説教を通して「言葉、行動、愛、信仰、純潔の点で、信じる人々の模範となりなさい」とメッセージを語った。

続いて、西部地方会会長である梁榮友牧師(岡山教会)の司式による委任式では、金鍾樞牧師が委任される韓澤柱牧師の紹介をした後、誓約・祈祷・宣布がなされた。そして、金徳化牧師(神戸東部教会名誉牧師)による勸勉、尹聖哲長老(神戸教会)と木原貢基牧師(日本基督教団姫路五軒邸教会)による祝辞と続いた。

その後の答辞において、委任された韓牧師は、「姫路教会が姫路地域に光と塩の役割を果たす」ことを主と教会員と来賓に向けて力強く語った。これにより、姫路教会の牧師委任式は、多くの人々の祝福の中で感謝の内に幕を閉じた。

(報告: 韓澤柱牧師)

在日同胞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 2006年4月25日、創立100周年を迎えました。



-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ホテル): フロントは日・韓・英語を対応、24時間サービス。10名様から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様)も可能。
- ◆スペースワイホール: 22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最適
- ◆韓国文化(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教室・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アジア語学院(日本語学校)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TEL 03-3233-0611 FAX 03-3233-0633

TEL 06-6981-0781 FAX 06-6981-0782

(税込み)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300	¥5,040
ツイン	¥11,550	¥9,240
トリプル	¥14,490	¥11,592
朝食 ¥200 カルピック、コムタン、ユッケジャン、韓定食、洋食(全メニューコーヒータン)		

＜長野教会＞崔和植牧師委任式 張元世牧師名誉牧師推戴式・勸士・按手執事任職式

5月23日午後1時、長野教会では崔和植牧師の委任式と張元世牧師の名誉牧師推戴式、そして趙秀真勸士、菅原昭夫按手執事の任職式が、約70名の聖徒とともに恵みのうちに挙行された。礼拝は、臨時堂会長である金仁果牧師(岐阜教会)の司会によって始まり、名古屋教会と名古屋南教会の合同聖歌隊の賛美、全炳玉牧師(名古屋南)の祈祷の後、中部地方会会長である金性済牧師(名古屋)が「祝福の約束」という題で説教した。まず、2002年に長野教会に赴任し、2010年12月30日に定年隠退をした張元世牧師の名誉牧師推戴式が金性済牧師の司式によって行われた。

引き続き、金仁果牧師の司式によって、趙秀真執事の勸士任職式、菅原昭夫執事の按手執事の任職式が執り行われた。最後に、中部地方会会長金性済牧師の司式によって、崔和植牧師の委任式が行われた。趙尚浩牧師(愛隣伝道所)と朴太元牧師(豊橋)が勧めの言葉、長野福音教会の正村八重子牧師と洪領晃牧師(一宮伝道所)と権潤日牧師(浜松)が祝辞を述べた後、長野教会の信徒により祝歌(이 믿음 더욱 굳세 어라)があり、張元世牧師の祝祷をもって礼拝が終わった。礼拝後には、金性済牧師の歓迎の挨拶があった。引き続き、1階で、女性会が準備した祝賀愛餐会が有吉由里奈執事の司会によって開かれ、約70名の参加者は神さまの恵みに深く感謝した。



今回、長野教会の委任牧師となった崔和植牧師は1972年2月5日生れで、2006年からは大垣教会に赴任し、2011年3月まで、約6年間牧会して、今年4月に長野教会に赴任した。そして張元世名誉牧師は、1940年12月30日生れで、1973年に韓国の釜山神学校を卒業した。さらに、2000年9月東京総会神学校を卒業し、2000年5月に長野教会(当時、伝道所)へ伝道師として赴任した。2年後は中部地方会で牧師按手を受け、引き続き長野教会で2002年から2010年12月30日まで牧会して、定年隠退し、韓国に帰国した。(報告:金仁果牧師)

＜川西教会＞朴斗熙牧師委任式 教会らしい教会を目指して

去る5月29日、台風と梅雨の影響による大雨の中、西部地方会の川西教会に於いて、ご来賓及び信徒約130名の方々の御臨席を賜り、朴斗熙牧師の委任式が主の祝福の下厳かに執り行われた。



第1部の礼拝は臨時堂会長である裴明德牧師(神戸東部教会)の司会の下、川西教会方宗進名誉執事による祈りと聖歌隊の賛美、そして武庫川教会李聖雨牧師の「牧会者の力」と題しての説教では、委任される朴斗熙牧師が神様の僕として仕える牧師になることを勧められた。また聖歌隊の賛美を通して、教会が教会らしく、礼拝が礼拝らしく、即ち教会のあるべき姿を目指して「私たちを用いたまえ」というビジョンを感じた。

第2部の委任式は西部地方会会長である梁榮友牧師(岡山教会)司式の下で行われ、西部地方会からの委任記念牌を授与した。第3部の勧めでは、梁榮友牧師が朴斗熙牧師に「神様に用いられる器になるように。」と、神戸東部教会の李鐘國長老が信徒たちに、「牧師と一つになる信徒であるように。」と勧められた。祝辞では、西部地方教会女性連合会会長の李炫知勸士(神戸教会)が、「いろんな苦しみが終わって、新しい出発をされる川西教会を心よりお祝いします。」と述べられた。

その後、信徒の若松姉妹の家族による素晴らしい演奏会があり、会場の雰囲気豊かにされた。引き続いて、記念品・花束の贈呈があり、朴斗熙牧師により「神様に、西部地方会の各教会に感謝し、これからの川西教会が成長することを見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答辞、方宗進名誉執事の挨拶、朴斗熙牧師の祝祷で閉式された。

今年81周年を迎える川西教会は、新しい出発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これから神を愛し、地域を愛する、教会のあるべき姿があらわれることが期待される。

不動産管理
アカンセル名駅
李 光 世
(名古屋教会 長老)

〒453-0013 名古屋市中村区亀島2-2-27
電話・FAX 052-451-7713 携帯 090-3578-7571
E-mail: kwangse.lee@nifty.com

豊かな味はころまで豊かにする。



代表取締役 吳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Fax. 03-3353-6200

〈西部地方会〉西宮弟子教会 教会加入式・牧師委任式

지난 5월 29일, 서부지방회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니시노미야 제자교회(西宮弟子)의 교회 가입식 및 이중재목사(李重載牧師)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이에 서부지방회 소속 교회 관계자인 목사, 장로, 교인들 약 40여명은 아름다운 축하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새로운 교회의 가입과 더불어 담임목사의 위임식을 축하하며 격려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예배에서는 그동안 임시당회장으로 봉사한 이성우목사(武庫川)가 사회를 맡았으며, 서부지방회 부회장인 김종권목사(明石)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神さまの御心に適う者)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교회가입식과 위임식의 사회는 서부지방회 회장인 양영우목사(岡山), 교회 소개 및 총회가입에 대한 경과보고는 지방회 서기인 김승희목사(西宮)가 한 후에 모두가 축하하며 환영하였다. 이어서 권면은 신종국목사(明石名譽牧師), 축사는 박경호 장로(姫路 水)가 하였다. 서부지방회는 이중재목사에게 기념품으로 위임패를 증정하였으며, 이에 위임받은 이중재 목사가 답사와 축도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니시노미야((西宮)는 총인구가 48만 명으로 고베(神)와 오사카(大阪)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과 주거의 도시로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번에 가입하게 된 니시노미야 제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중재목사에 의해서 지난 2006년에 개척되었으며, 지난 4월 29일에 개최된 제 27회 서부지방회 총회를 통해서 교회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러므로 금번의 교회 가입식과 목사 위임식으로 인하여 장래적으로 니시노미야 제자교회를 통하여 서부지방회 및 한신지역(阪神地域)에 있는 한신선교기도회와 더불어 일본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 : 이중재목사)

〈関東地方会〉千葉教会 金明均牧師委任式

지난 6월 5일에 치바교회에서는 김명균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동경제일교회 장경태목사(관동지방회서기)가 기도를 한 후에 김동수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사도행전 16장 23-26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관동지방회회장인 한성현목사(니시아라이교회)의 사식으로 위임식으로 이어졌다. 장경태 목사가 김명균목사를 소개한 후에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서약과 선포를 통하여 위임식을 모두 마쳤다.

금번 위임식을 통하여 김명균목사는 〈먼저 치바교회 담임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위임예배에 참석해 주신 관동지방회 목사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참석으로 인하여 재일대한기독교의 저력을 느끼게 된 은혜의 위임예배였다고 감사했다.

금번에 위임받은 김명균목사는 감리교 목사로서 지난 2010년 4월부터 치바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여 1년이 지나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에 김목사는 치바교회 교인 일동의 이름으로 복음신문 앞으로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위임예배를 시작으로 저희 치바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교회의 몸 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또한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전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 치바교회와 부족한 저를 위해 뜨거운 격려와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 편집부, 김명균목사)

학습과 세례를 위한 준비교육 소책자

(学習・洗礼・入教 教育小冊子)

학습・세례・입교 교육은

준비교육 소책자를 이용하시면 유익합니다.

- 한국어 일본어 겸용이네요!
- 현대어 표현으로 알기 쉬워요!
- 글씨가 크고, 내용도 충실하네요!
- 申請: 総会事務局 (03-3202-5398)



＜西南地方会＞福岡教会 権寧国牧師委任式

去る 5 月 29 日(日)、福岡教会において権寧國牧師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た。福岡教会は、西南地方会で大きな働きを担ってきた教会であり、信徒や地方会内の教会が共に痛みを分かち合いながらこの時を祈ってきた。そのため牧師委任式には、200 名を超える来賓や西南地方会各教会の牧師や信徒達が参加し、恵みの雨の中で行われた。

臨時堂会長の金明均牧師が司会し、西南地方会会長である鄭守煥牧師の司式により、委任者の紹介、誓約、宣布がなされた。前地方会会長である金聖孝牧師が説教し、委任された牧師への勸勉を崔栄信牧師が、教会員への勸勉を崔正剛牧師が、そして総会を代表して、総幹事洪性完牧師、西南地方会の金貞子長老、日本基督教団の茶屋明郎牧師、日本キリスト教会の澤正幸牧師より祝辞があった。

また、喜びを持って聖歌隊が祝歌を讃美し、韓国からも、牧師師母の兄弟たちによる祝歌と総会内外からの祝電・祝文が報告された。最後に、権寧國牧師の祝祷をもって委任式を終えた。式後は、福岡教会信徒達の心込めた夕食を前にして、福岡教会の青年会や福岡中央教会からの祝歌、来賓の祝辞を通して、良き交わりの時間を過ごした。

今回委任された権寧國牧師は、1957 年生まれで、ソウル基督大学校神学科と東京神学大学を卒業し、同大学院博士課程修了した。その後、東京日暮里教会と神戸教会の担任牧師を経て、今回、福岡教会に赴任した。尚、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神学校の教授や校長、総会の教育部長、西部地方会会長を歴任され、現在、総会書記としても奉仕している。家族は、鮮于潤實師母、権美麗(長女)、権五赫(長男)がいる。
(報告：金明均牧師)



福音新聞原稿募集

- ・ 内容：各報告、証し、説教、自由投稿、
- ・ 対象：在日大韓基督教会の全信徒
- ・ 言語：韓・日語(得意な言語でお願いします)
- ・ 写真：1-3 枚程度
- ・ 期間：年中(締め切り：毎月 19 日)
- ・ *添付ファイルは、word 文書でお願いします。
- ・ 送信先：fukuinshinbun@kccj.jp
shinacho2003@daum.net

福音新聞社 編集部

＜関東地方会＞三沢教会 全勝大牧師委任式



＜韓国語学校学生たち＞

관동지방회 미사와교회에서는 지난 6 월 23 일 전승대 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위임식에 참석한 내빈들은 먼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황정순 목사(지방회부서기)의 사회와 한성현 목사(지방회장)의 설교와 정인화목사(미토전도소)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한성현목사의 집례로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임백생장로(지방회 장로부회장)의 축사와 강장식목사(시나가와교회)의 권면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금번 위임식은 목사위임식이었지만 현재 미사와교회에남아있는 교인은 한 명만 있는 상태라서 매우 쓸쓸한 위임식이 될 뻔 하였다. 그러나 전승대 목사는 관동지방회 임원들과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하여 형식은 목사위임식으로 거행하되, 내용은 선교집회로 하기로 결의하고 한국어교실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여 모든 순서를 일본어로 진행하는 식으로 위임식을 일본인 선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마침 동일본 재해지 방문기도회를 겸한 14 명의 지방회원들이 참석하여 일본인들과 모두 65 명 가량이 미사와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우게 되는 은혜로운 위임식이 되었다.

특히 한국어교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주방을 돕고, 주차안내와 손님안내를 하였으며, 위임식 후에도 설거지와 청소, 책걸상 정리까지 열심으로 도우며 완전히 교인들의 역할을 해냈다.

이곳 미사와는 한국인이 희귀한 지역이므로 미사와교회는 한인목회 보다는 일본선교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하여 이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일본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전목사는 이렇게 전했다.

〈비금은 비록 작고 미약한 출발이지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아가는 미사와교회에 많은 기도과 성원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보고：전승대)

＜関東地方会＞北上ベデル伝道所

龍煥雄牧師委任式

지난 6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키타카미벤엘전도소(구, 키타카미시온전도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교인들이 간절히 소망해 오던 용환웅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하였다. 임시대회장인 김동수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위임예배에는 관동지방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를 비롯하여 센다이교회 성도들과 일본기독교단 오우교구장 및 키타카미교회 목사 등, 약 30여 명이 참가하여 은혜로운 위임식이 이어졌다.

먼저 위임 예배에서는 키타카미벤엘전도소의 어머니교회인 서동일목사(仙台)의 기도예배로 시작하여 후지대학에 재학중인 오승석 청년의 '주만 바라볼지라'의 특송 후에 조종래목사(船橋)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딤후 6:11~12)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관동지방회 회장인 한성현 목사(西新井)의 인도로 목사위임식이 거행되자, 서기 장경태목사(東京第一)가 용환웅 목사를 소개한 후에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서약이 있었다. 권면은 이명신 목사(山形ウリ), 축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일본지방 감리사인 이용규 목사(中央 光)와 일본基督 団北上 会 小林功牧사가 하였다.

축문 및 축전을 피로한 후에 김은희 집사가 교인들을 대표하여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를 부른 후에 용환웅 목사의 축도로 지진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다.



용환웅목사는 답사를 통하여 <키타카미벤엘전도소에 부임하여 1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에 교인들이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많은 헌신과 사랑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예배당 이전과 교회명칭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마리아인의 선한 기독교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키타카미벤엘전도소는 이와테현에서 재일한국인들과 일본 선교를 위하여 전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2011년도 교회표어를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키타카미벤엘전도소는 현재 예배당과 사택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오전예배와 교회학교 영상예배, 수요일에는 제자훈련, 금요일에는 속회예배를 드리고 있다. 용환웅 목사와 모든 성도들의 바램은 더욱 부흥하여 전도소에서 교회로 승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는 지역이므로 관동지방회와 개 교회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 용환웅목사)

＜報告＞総会被災支援ボランティア 第6次の派遣を無事に終了

東日本大震災対策4者協議会(総会大震災対策委員会、関東地方会大震災対策委員会、全国教会女性連合会、青年会全国協議会)の決定によりイースター直後の4月25日より始まった在日大韓被災支援ボランティアチームの活動は、これまで6回の派遣(1回につき5泊6日、4日の作業日程)に、のべ50人ほどの参加者を現地に送ってきた。

ボランティアチームは、「いわきチーム」(リーダー:韓在文牧師/水戸伝道所)と「仙台チーム」(リーダー:許伯基牧師/つくば東京教会)の2チームに分かれ、それぞれ現地のニーズに沿った活動を行っている。東北では現在でも、近代史上最悪の津波被害から復旧するための様々な努力が日本国内外のキリスト者たちの協力のもと行われているが、われわれ在日大韓基督教会のボランティアチームのはたらきも、教派を超えた共同の取り組みの一環として、小さな力ではあるがその一端を担っている。

いわきチームは、いわき市社会福祉協議会のボランティア募集に応じる形で、被災地域の家屋や市街地復旧作業に携わっている。韓在文牧師の指揮のもと進められてきた活動は、復旧作業から支援物資の受け入れや配送まで、多岐にわたっている。周知の通り、福島県いわき市は福島第一原発から近く、放射能汚染が心配される地域であるが、そのようなリスクを押して参加した李聖雨牧師(武庫川教会)、梁榮友牧師(岡山教会)、金鍾權牧師(明石教会)、金聖泰伝道師(武庫川教会)をはじめとする西部地方の教役者・信徒有志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た。またリーダーである韓在文牧師は、自身の伝道所が地震によって半壊するという危機の中でも、その時々状況に臨機応変に対応しながら支援活動に奔走している。

仙台チームは、宮城地域の超教派的な被災支援活動のリーダーシップを取る東北ヘルプ(仙台キリスト教連合被災支援ネットワーク/代表:吉田隆牧師)との連携のもと、日本キリスト改革派東仙台教会チームの指揮する東松島市東名地区にて、家屋の復旧作業に当たっている。これまで朱文洪牧師(総会社会委員長/小倉教会)、金必順牧師(全国女性会総務)、金貞子長老(全国女性会副会長)、金耿昊青年(全協代表委員)をはじめとする在日大韓内部の参加者の他に、他教派や韓国NGO、他宗教(ユダヤ教)からの参加者があるなど、仙台チームのはたらきは超教派、超宗教的な様相を帯びている。

現地では、多教派の教会や欧米の宣教団体、キリスト教系NGOなどと共に祈り、汗を流すことによって一つのはたらきをなす、という実に貴い体験を与えられている。また同じ地域で継続して活動続けることによって、被災された方々との間に「顔の見える」交流関係が生まれている。第3回派遣では品川教会の炊き出しチームと合流して南三陸町の避難所を訪れ、支援物資を提供する機会に恵まれた。第4回派遣では、関東地方会の牧師有志による視察・慰問を受けた。

10月初旬まで10回が予定されている被災支援ボランティアも、すでに半分以上を消化した。これまで大きな事故や怪我もなく活動が続けてこられたことは、まさに主の恵み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いだろう。惜しむらくは「助けを必要とする隣人のために汗を流す」この活動が「生きたキリストを証しする」貴い機会である、ということが、在日大韓の教役者・信徒たちに広く認識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残り4回のボランティア派遣に、より多く在日大韓の人々が集められ、この貴い体験を分かち合うことが出来ることを祈りつつ、被災支援ボランティア活動の報告を終えたい。(報告:許伯基)

創世記連続講解 (6)

尹宗銀 牧師
(横浜教会名誉牧師)



創世記 10 章

創世記 10 章の総主題は、『人類の分布と各種族』であるが、分解すると 4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 節：ノアの三人の息子たちの系図。
- ② 2-5 節：ヤフェトの子孫の系統。
- ③ 6-20 節：ハムの子孫の系統。
- ④ 21-32 節：セムの子孫の系統。

本章は、ノアの三人の息子たちが人類の祖先となって全地に分布された記事である。同時に、選民イスラエルの祖先であるアブラハムまで連続させている中継的な記事でもある。全人類は、歴史上の見解から見れば、異邦人やユダヤ人選民は皆共に同じ兄弟であり、神の家族である。一つの血統から造られて、全地に住まうようにした(使 17:26)。しかし、罪によって離散され反目するようになったが、再びイエスの尊い血によってすべての種族がイエスを中心として平和の中で礼拝するようになった(黙 7:9)。神は、イスラエルの神であると同時に全人類の父である。

三番目の息子であるヤフェト〔Japheth〕の子孫は、地中海を中心として全ヨーロッパ各地に散らばって居住した。ハム〔Ham〕の子孫は、エジプトを中心としてアフリカ州各地に散らばって居住した。長子であるセム〔Shem〕の子孫は、アッシリヤ〔Assyria〕を中心としてアジア州各地に散らばって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

ニムロド〔Nimrod〕という言葉は、「反逆者」という意味である。彼は、ハムの子孫の一派としてバビロンを創設した英傑〔hero〕である。彼は、ヤ・ウェの前で『勇敢な狩人』であった。このことは、神の反逆者として靈魂を狩る者、無神専制主義者を指しているし、バビロンの王ネブカドネツァル〔Nebuchadnezzar〕のような暴君を意味している。

このバビロンは、昔から黙示録に至るまで(黙 18:14)、歴史的に世俗国家の代表的な名称である。世の繁栄は、神の反逆者を通して行われる。ノアの息子たちの歴史は、人類種族史の起原であると言える。世界の三大種族は、ノアの子孫たちである。

< 平和統一主日 指定献金要請 > (8月15日)

主님의 이름으로 問安드립니다. 21 世紀에 들어서도 여전히 世界の 唯一한 分斷國家인 우리 民族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攝理하심이 운데 平和統一이 實現되기를 祈願합니다. 南北이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시는 主 안에서 우리 在日大韓基督敎會가 堪當해야할 使命은 막중합니다. 在日大韓基督敎會는 祖國의 平和統一을 위해 獻身하는 무리 이기를 願합니다. 이같은 일을 堪當하고 推進할 수 있도록 뜨거운 配慮와 아낌없는 支援을 바랍니다. 今年에도 8 月 14 日 主日을 南北敎會를 비롯 世界敎會가 平和統一主日로 지킵니다. 이 헌금은 平和統一을 위한 世界敎會와의 連帶를 위해 쓰여집니다.

2011 年 8 月 3 日

在日大韓基督敎會
總會長 崔榮信
總幹事 洪性完

創世記 11 章

創世記 11 章の総主題は、『バベルの塔と人類の分散』であるが、それを分解すると 3 項目に分けられる。

- ① 1-9 節：バベルの塔の建造。
- ② 10-20 節：セムの子孫の系図。
- ③ 21-32 節：テラ〔Terah〕の子孫の系図。

本章の前半のバベル〔Babel〕の塔の記事は、全章のバベル塔建設と諸民族の分布の由来を示している。彼らは、『天まで届く塔のある町を建て、有名になろう』とした。そして全地に分散するのを防止しようとした。これは、反神的な行為であった。つまり、全地に満ちよと言う神の約束に反することである。そして、洪水でもって滅ぼさなさいという神の言葉を信じなかったことである。

『天まで届くようにしよう』というのは、神に対する挑戦的な態度である。この塔を建設する人は、創世記 10 章 8 節で見せられたニムロド〔Nimrod〕である。彼の名前の意味は、『反逆者』である。彼は、名実共に反逆の行為を、あえて行った。伝説によれば、バベルの塔は偶像を崇拜するために建てたのである。石の代わりにれんがを使用したことは、神の祭壇は、石で築くのに対して反対品であると同時に贅沢品である。

神に反する事業は、どんなに華やかであっても、必ず失敗に終わる。神が彼らの傲慢な態度を罰するために非常措置を取って、彼らの言語を混乱させたので、互いの言葉が聞き分けられないようになり、全地に散されたのであった。

これによって人類社会に不幸が大きくなって行った。即ち、言語不通、意志不通、感情疎遠、家庭、階級、国家間の紛争、戦乱等はバベル〔言語を混乱させる〕の不一致の結果である。しかし、五旬節の聖霊の働きによって、あらゆる言葉で神を讃美したことによって快復され、具体的には、将来主の国において成就されるであろう。

< 教会移転による新住所のお知らせ >

1. 東京緑洲伝道所

〒102-0075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在日本韓国 YMCA 内 3 階

2. 東京黎明教会

〒169-0074 新宿区北新宿 3-1-18
日本キリスト教会柏木教会内

3. 盤石教会 (旧・東京綾瀬教会 臨時礼拝所)

〒340-0834 埼玉県八潮市大曽根 385-4

4. 東京蒲田教会 (牧師宅兼用)

〒140-0024 東京都大田区中央 8-22-12

5. 水戸伝道所 (牧師宅兼用)

〒310-0031 茨城県水戸市大工町 2-6-27

6. 北上ベデル伝道所 (旧、北上シオン 牧師宅兼用)

〒024-0061 岩手県北上大通り 3-5-16

7. 郡山伝道所

移転準備中

『総会事務局夏期休暇のお知らせ』

2011 年 8 月 15 日 (月) ~ 19 日 (金) 間は、総会事務局の夏期休暇です。急用の場合、info@kccj.jp までメールを!

東日本大震災募金集計 2011. 7. 31 現在

総会					
1	札幌教会	182,203	51	大阪第一教会	59,300
2	三沢教会		52	大阪平康教会	
3	北上シオン伝道所		53	布施教会	200,000
4	新潟教会		54	異教会	
5	仙台教会		55	大阪教会	500,000
6	山形刈教会	65,500	56	大阪築港教会	
7	郡山伝道所		57	日本サラン伝道所	
8	水戸伝道所		58	大阪南部教会	
9	つくば東京教会	78,000	59	浪速教会	51,359
10	日立教会		60	大阪西成教会	300,000
11	大宮教会	8,300	61	豊中第一復興教会	28,312
12	千葉教会		62	高槻伝道所	
13	船橋教会	59,100	63	永和教会	
14	西新井教会	179,230	64	枚岡教会	37,000
15	東京教会	500,000	65	平野教会	57,000
16	東京緑洲伝道所		66	堺教会	95,020
17	品川教会	66,000	67	春木伝道所	
18	東京東部教会		68	南港伝道所	
19	東京第一教会	59,000	69	関空伝道所	
20	東京中央教会		70	高槻伝道所	53,000
21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150,000	71	和歌山第一教会	417,405
22	黎明教会	12,000		関西地方会	70,900
23	ハンサン教会			布施・奈良合同礼拝	89,200
24	東京調布教会			関西地方会合計	3,094,352
25	東京蒲田教会	25,500	72	武庫川教会	139,700
26	東京綾瀬教会	17,000	73	西宮教会	288,000
27	東京聖山キリスト教会		74	川西教会	10,000
28	川崎教会	162,300	75	宝塚伝道所	
29	横浜教会	263,000	76	神戸教会	345,500
30	横須賀教会		77	神戸東部教会	
31	甲府刈教会	39,000	78	姫路教会	
	関東地方会合計	1,866,133	79	姫路薬水教会	20,000
32	長野教会	37,000	80	明石教会	12,139
33	浜松教会		81	水島教会	30,000
34	豊橋教会	101,500	82	岡山教会	68,000
35	岡崎教会		83	新居浜グレース教会	212,500
36	豊田めぐみ伝道所		84	広島教会	
37	名古屋教会	610,000	85	三次教会	15,000
38	名古屋南教会	27,000	86	福山伝道所	
39	愛隣伝道所			西部地方会合計	1,140,839
40	一宮伝道所		87	宇部教会	
41	岐阜教会	49,600	88	下関教会	36,000
42	大垣教会		89	小倉教会	109,300
43	四日市伝道所		90	折尾教会	
	中部地方会合計	825,100	91	福岡教会	30,000
44	新儀教会	20,000	92	福岡中央教会	80,000
45	京都教会	549,756	93	博多伝道所	64,000
46	京都南部教会	92,100	94	熊本教会	
47	京都東山伝道所	44,000	95	別府伝道所	42,000
48	奈良教会		96	沖縄教会	
49	大阪北部教会	430,000		西南地方会合計	361,300
50	今福教会			その他	65,000
				総合計	7,352,724

東日本大震災 KCCJ 募金口座案内

- ・銀行 (BANK) : 三菱 UFJ 銀行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 ・支店 (BRANCH) : 高田馬場支店
(TAKADANO-BABA)
- ・種類 (SWIFT) : 普通預金 (BOTKJPJT)

韓国		その他海外		
合同	1,500,000	永楽 USA	2,471,332	\$ドル
大神	200,000	UMC	828,600	30,000
基長	1,000,000	UCCanada	406,850	10,000
希望奉仕団	1,000,000	RCA	3,168,400	5,000 Can \$
総会長母 C	1,000,000	KPCA	1,591,000	40,000
ニューライフ C	16,204	テンバ第一	79,550	20,000
アヒョン監理	662,500			
合計	5,378,704	合計	8,545,732	105,000
募金合計			21,277,160	

支出		
関東地方会	9,900,000	
ボランティア	1,609,090	
対外支援	4,000,000	
総会長総幹事募金経費	417,066	伝達の故、出張
対策委員会	236,380	
銀行支払手数料	26,240	
合計	16,188,776	
現在残額	5,088,384	

第 51 回 定期総会 開催案内

- ・標語 :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キリストにあって私たちは一つ」(ヨハネ 17:21)
- ・日程 : 2011 年 10 月 10 日 (月) 午後 2 時～
10 月 12 日 (水) 午後 4 時
- ・会場 : 在日大韓基督教会 福岡教会
〒812-0044
福岡県福岡市博多区千代 5-11-48
TEL 092-641-9551 / FAX 092-641-0511
- ・宿所 : I.P HOTEL Fukuoka (アイピーホテルフクオカ)
一泊一人 4,500 円 (朝食込み・ツイン)
※ IP ホテルの KCCJ 担当 : 山根佑介さん
(注意 : 各地方会ごとに、まとめて予約)
〒810-0801
福岡県福岡市博多区中洲 5-2-18
<http://www.iphotel.co.jp/index.php>
TEL 092-262-2009 / FAX 092-262-1909

< 空港及び博多駅からホテルまで交通 >

- ・福岡空港→ 地下鉄空港線福岡空港駅から姪浜行き約 9 分
中洲川端駅下車 2 番出口→ 徒歩約 1 分
- ・JR 鹿児島本線博多駅→ 地下鉄空港線 姪浜行き 約 4 分
中洲川端駅下車 2 番出口→ 徒歩約 1 分
- ・福岡都市高速呉服町ランプから昭和通り約 1km 約 3 分目
標物 : 2 つ目の ampm

< ホテルから福岡教会まで交通 >

- ・ホテル→ 福岡市営箱崎線中洲川端駅から貝塚行き約 3 分
千代県庁口駅 2 番出口→ 徒歩 10 分 福岡教会